

KOSDAQ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코닉오토메이션 (391710)

장비 제어SW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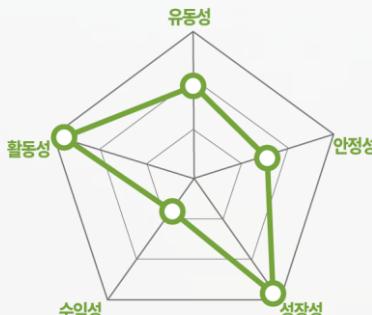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코닉오토메이션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 장비에 적용되는 제어 소프트웨어와 공정 운영 솔루션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비중은 제어SW 22%, 스마트팩토리 19%, 로봇물류 22%, IT인프라 37% 차지
- 동사의 반도체 제어 S/W 국내 점유율 85% 수준. 20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중심의 설비 투자 재개로 반도체 제어 S/W 실적 정상화 국면 돌입. 반도체 장비의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라 SW 역량을 보유한 동사의 수혜를 예상
-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39억 원(YoY -39%),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적자 전환. 스마트팩토리 부문의 전기차 캐즘에 따른 이차전지향 투자 지연과 로봇물류 부문의 2024년 일회성 대형 프로젝트 기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며 실적 조정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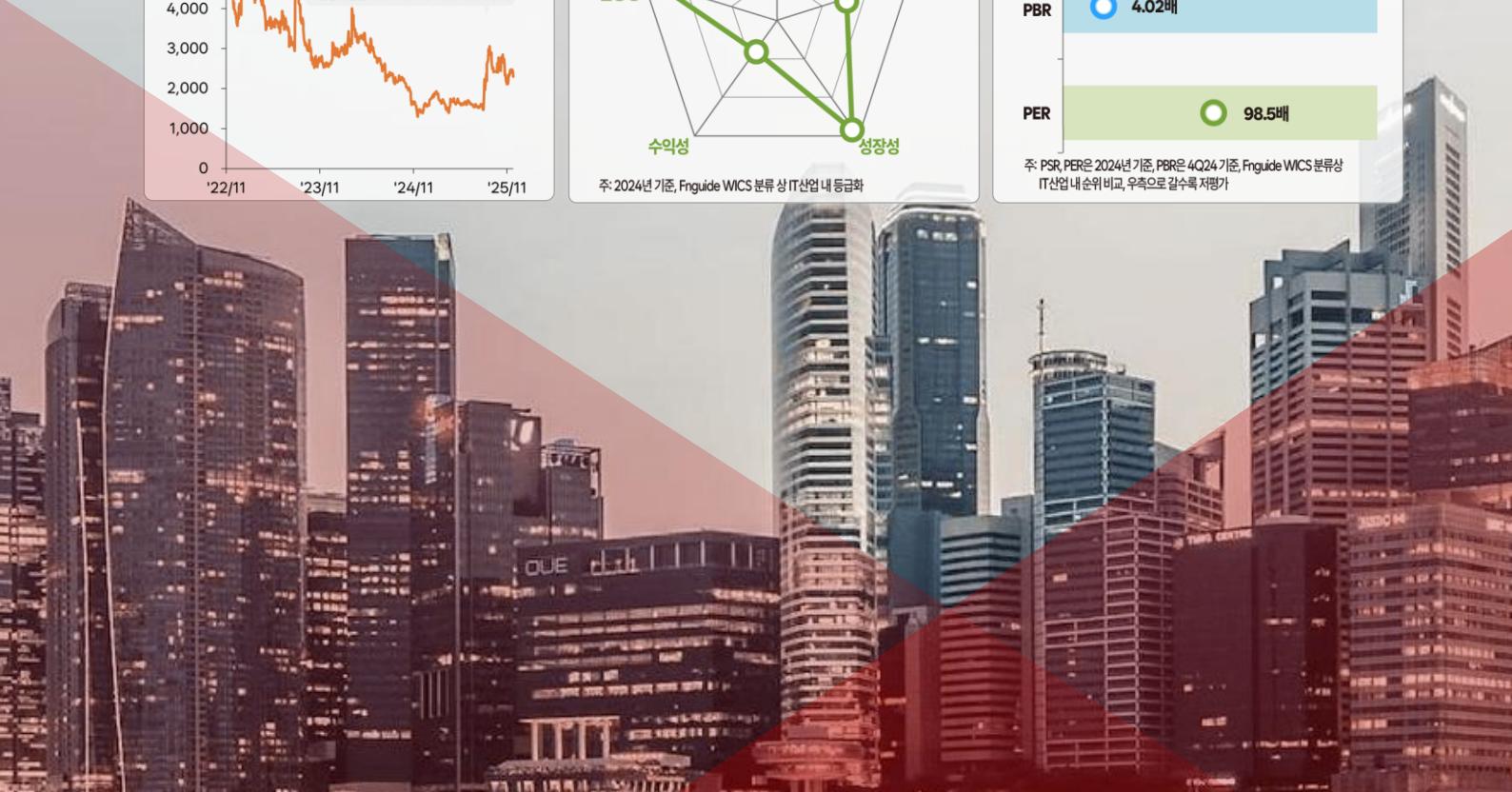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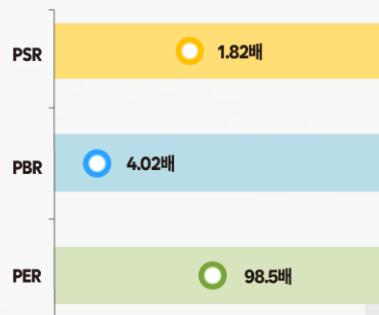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코닉오토메이션 (391710)

Analyst 이나연 lny1008@kirs.or.kr
RA 권지승 rnjswltd32@kirs.or.kr

KOSDAQ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반도체 장비 제어SW 기반의 제조 운영 솔루션 기업

코닉오토메이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장비에 적용되는 제어 소프트웨어와 공정 운영 솔루션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 장비 제어 SW를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및 IT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제어 SW 22%, 스마트팩토리 19%, 로봇물류 22%, IT인프라 37%

메모리 중심 반도체 CAPEX 사이클 재개 수혜

동사의 반도체 제어 S/W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1차 벤더(원익IPS, SEMES 등)로 공급. 현재 반도체 제어 S/W는 국내 M/S 85% 수준으로 국내 1위 기록 중.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장비 투자와 신규 프로젝트가 위축되며 제어 SW 실적이 정체됐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중심의 설비 투자 재개되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정 고도화와 스마트팩토리 강화를 추진하며 장비 단 AI 기능 탑재를 요구하고 있어, 장비 제어 SW 역량을 보유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됨

전방 투자 위축 속 실적 조정 국면, 2025년은 과도기 구간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39억 원(YoY -39%),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적자 전환. 스마트팩토리 부문의 전기차 캐즘에 따른 이차전지향 투자 지연과 로봇물류 부문의 2024년 일회성 대형 프로젝트 기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며 실적 조정이 불가피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 원)	273	301	273	555	339
YoY(%)	40.5	10.3	-9.1	103.0	-39.0
영업이익(억 원)	41	34	18	0	-12
OP 마진(%)	15.0	11.1	6.7	0.1	-3.5
자본주주순이익(억 원)	39	-56	23	10	-16
EPS(원)	96	-139	56	25	-37
YoY(%)	36.0	적전	흑전	-56.4	적전
PER(배)	306	N/A	461	58.5	N/A
PSR(배)	4.3	5.2	3.9	1.1	3.0
EV/EBITDA(배)	3.9	35.5	38.9	54.1	1,847.7
PBR(배)	22.4	6.9	4.1	2.3	5.1
ROE(%)	115.9	-40.3	9.6	3.9	-6.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16)	2,300원
52주 최고가	3,060원
52주 최저가	1,383원
KOSDAQ (12/16)	916.11p
자본금	42억 원
시가총액	980억 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4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9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2억 원
외국인지분율	1.25%
주요주주	APS홀딩스 외 7인
	70.6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	41.8	54.8
상대주가	-3.0	20.3	18.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벤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벤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벤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반도체, 2차전지, 물류 영역에서

AI 자동화 솔루션 제공

코닉오토메이션은 AI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로봇물류 시스템,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APS홀딩스(2025.12.16 기준 시가총액 744억원)의 자회사로, 1994년 '코닉시스템'으로 설립된 이후 201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13년 IT 인프라 사업을 신설하고, 2018년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2019년에는 로봇물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왔다. 사업 확장의 성과는 202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중국 킹세미(Kingsemi) 제어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에코프로비엠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과 쿠팡 로봇물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주요 레퍼런스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반도체/2차전지/물류 산업 전반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코닉오토메이션은 2022년 7월 엔에이치제21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25 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해당 자금은 주로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닉오토메이션은 2024년 연간 555억 원(YoY +103.0%)을 달성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제어SW 71억 원(YoY +6.6%), 스마트팩토리 95억 원(YoY -8.1%), 로봇물류 257억 원(YoY +26.136%), IT인프라 132억 원(YoY +28.5%)으로 구성된다. 2024년 로봇물류의 경우 한화솔루션의 미국 설비 자동화 프로젝트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

현재 코닉오토메이션은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그룹사(넥스틴, 디이엔티, AP시스템 등)가 아닌 외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반도체 장비업체, 2차전지 소재업체, 물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계열사 의존도가 낮은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연혁

제어SW를 기반으로 IT인프라 사업 확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외형 확장	제어SW & 스마트팩토리 사업 성장 본격화
1994	·코닉시스템	2016	·코스닥상장(SPAC합병) ·물류사업 확대 (쿠팡 주요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1997	·EasyCluster 런칭	2017	·물류사업 확대 (포스코큐처럼, LG화학 프로젝트 수주)
2011	·코닉오토메이션(주) 상호변경	2018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 확대 ·물류·자동화 솔루션 사업 신설 ·EDA 솔루션 사업 중국 진출
2012	·AP시스템 CTC사업부 영업양수	2019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 확대 ·EDA 솔루션 사업 중국 진출 ·경기도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선정
2013	·IT 인프라 사업 신설	2020	·스마트팩토리 사업 수주 (에코프로비엠 등) ·물류·자동화 사업 수주(CJ대한통운 등) ·EasyLinux 개발
2015	·Radware 품판 계약 ·EDA 솔루션 개발 ·3D Display 솔루션 개발	2021	·제어SW 사업 중국(Kingsemi) 시장 확대 (40억 규모 수주) ·스마트팩토리 사업 확대 (에코프로비엠 2차 수주) ·물류자동화 사업 확대(쿠팡 수주)
2017	·EfficientP 충돌 계약	2022	·제61회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중국 Kingsemi SW 라이선스 납품 계약 체결 ·제2025 KOREA LAB 전시회 참가 ·LS MnM 비철금속 ICP 수주 ·고려아연 환산 ICP 수주
2018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및 민간/정부 사업 수주	202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고도화 사업 수주 ·물류감사 자동화 사업 확대 (L&F 수주) ·자동화 설비 수주 계약 체결 (한화솔루션, 국내 2건, 국외 1건) ·중국 Kingsemi SW 라이선스 납품 계약 체결 ·물류감사 자동화 사업 확대 (에코프로비엠) ·OLED TV A-SIze 패킹 공정 자동화 계약 체결 (이노스첨단소재) ·동탄 R&D 센터 증축
2019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 신설 ·EDA 솔루션 사업 중국 진출 ·경기도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선정	2024	·물류감사 자동화 사업 확대 (포스코큐처럼 캐나다) ·EasyLIMS 출시 (실험실 자동화 솔루션) ·경영혁신 중소기업 취득 ·벤처기업확인서 취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취득 ·제61회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중국 Kingsemi SW 라이선스 납품 계약 체결 ·제2025 KOREA LAB 전시회 참가 ·LS MnM 비철금속 ICP 수주 ·고려아연 환산 ICP 수주
2020	·스마트팩토리 사업 수주 (에코프로비엠 등) ·물류·자동화 사업 수주(CJ대한통운 등) ·EasyLinux 개발	2025	·2025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 참가 ·2025 KOREA LAB 전시회 참가 ·LS MnM 비철금속 ICP 수주 ·고려아연 환산 ICP 수주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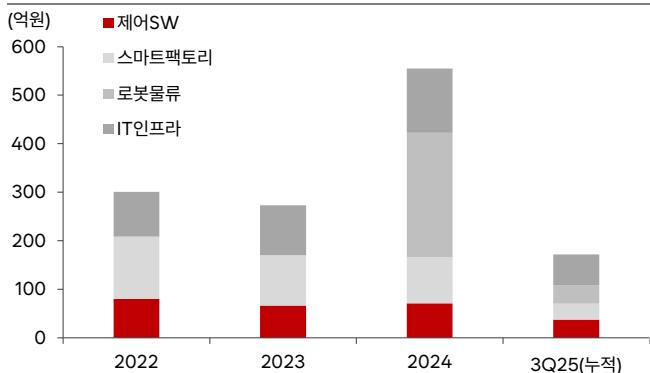
주요 그룹사



주: 시가총액은 25.12.1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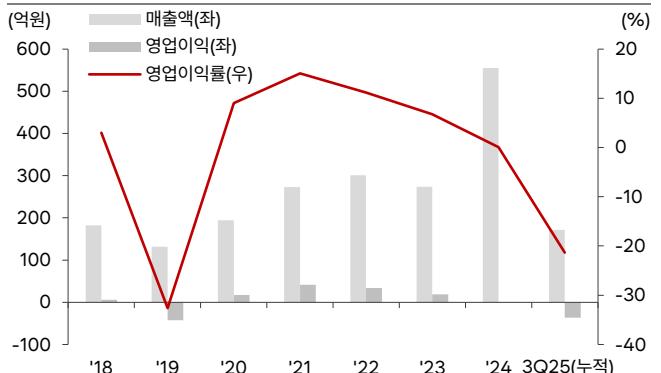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② 주요 서비스 및 제품

코닉오토메이션은 1)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에 필요한 제어 SW, 2) 스마트팩토리 SW/HW, 3) 로봇 물류, 4) IT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부별로 주요 고객사의 산업군이 달라지며, IT 인프라 사업부를 제외한 1~3)의 사업부는 최종 고객사의 투자 환경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5년 이상 반도체 장비사에

제어 소프트웨어 납품

[제어 SW 사업부, 2024년 매출액 71억 원, 매출 비중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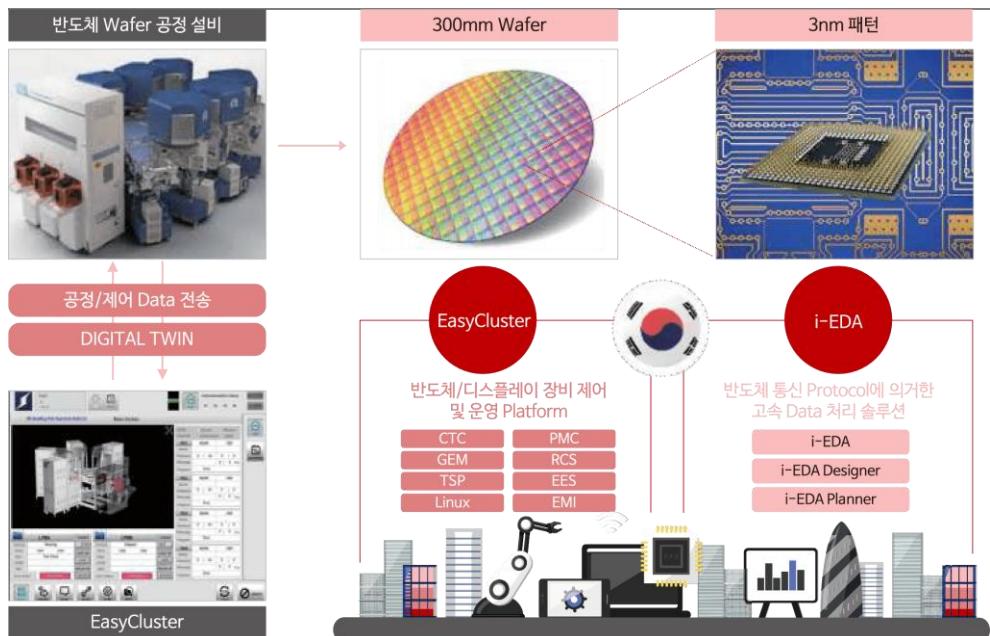
제어 SW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별 공정 특성에 최적화된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사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장비 제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고속 데이터 전송&처리와 관련된 솔루션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다.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사에 제어 소프트웨어를 납품해왔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원익IPS, 유진테크, 브이엠, 케이씨텍 등이 있다. 또한 2021년 중국 반도체 장비사인 킹세미(Kingsemi)로부터 약 40억 원 규모의 제어 소프트웨어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고객사로의 사업 확장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사의 신규 장비 개발 단계부터 기존 장비의 성능 개선 및 업그레이드 과정까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십을 통해 '장비 개발 → 장비 양산' 전 과정에 걸쳐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비 1대당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제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은 반도체 장비 출하량과 연동되는 구조로, 최종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CAPEX) 수준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존재하는 편이다.

제어 SW 역할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스마트팩토리 사업부

**2차전지 산업 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산업군 확대 중**

[스마트팩토리 사업부, 2024년 매출액 95억 원, 매출 비중 17.0%]

스마트팩토리 사업부는 2차전지, 비철금속, 물류, 제조, 실험실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통합 솔루션 (HW+SW)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정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공정 이상 감지, 설비 성능 관리, 생산 데이터의 조회 및 추출 기능 등을 통해 공장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차전지 산업에서는 양극재·음극재 공정 간 품질 검사 및 출하 단계의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엘앤에프 등 주요 2차전지 소재 업체로부터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2차전지 산업 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LS MnM의 비철금속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분석 공정과 고려아연의 황산 ICP 공정과 관련된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향후에는 축적된 공정 자동화 및 데이터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 제약, 에너지 등 타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물류 사업부, 2024년 매출액 257억 원, 매출 비중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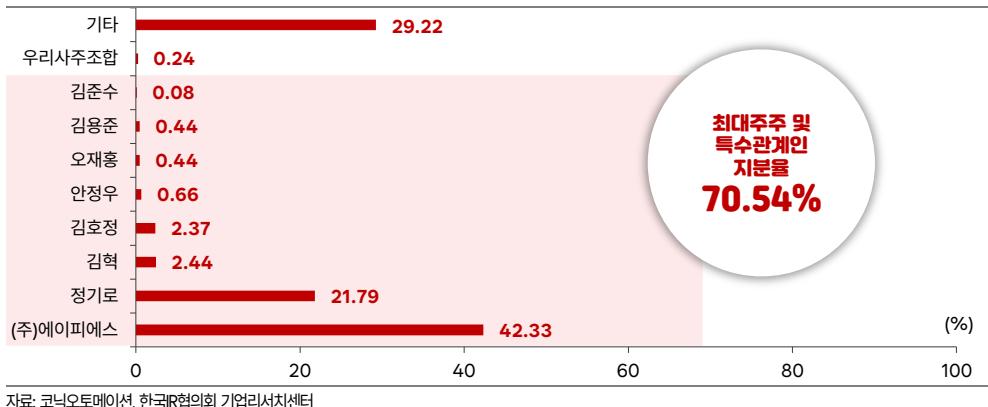
로봇물류 사업부는 AGV(Autonomous Guided Vehicle), ETV(Electrical Transfer Vehicle)와 다관절 로봇 등을 활용해서 물류센터내 입출고, 이송, 분류 등 주요 작업을 자동화하고, 컨베이어, 리프트 등 전통적인 물류 설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전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솔루션을 구축해주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쿠팡, 한화솔루션 등이 있다.

[IT 인프라 사업부, 2024년 매출액 132억 원, 매출 비중 23.8%]

IT 인프라 사업부에서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부이다. 주로 네트워크/보안과 관련된 장비를 판매, 설치,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국내외 IT 장비 제조업체와 계약해서 네트워크 설비에 필요한 ADC/스위치/보안제품 등의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3 주주 구성

2025년 9월 말 기준 코닉오토메이션의 총 발행주식수는 42,065,086주이다. 최대주주인 (주)에이피에스는 4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에이피에스(정기로 지분을 32.55%) 정기로 대표이사가 코닉오토메이션의 2대 주주이며, 코닉오토메이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상황이다. 코닉오토메이션의 김혁 대표이사는 2.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70.54%이다. 나머지 우리사주조합이 0.24%, 기타 개인 주주가 29.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구성(3Q25말 기준)

 산업 현황**1 반도체 제어 SW 산업 현황****2025년 하반기~2027년까지****반도체 CAPEX 확대 예상**

코닉오토메이션이 영위하는 반도체 제어 SW 산업은 반도체 장비 출하 및 설비투자(CAPEX)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가진다. 동사의 반도체 제어 SW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1차 벤더 장비사를 통해 납품되는 형태로, 주요 고객사는 원익IPS, 세메스(SEMES) 등 국내 핵심 반도체 장비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이들 고객사를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어 SW 시장에서 약 8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장비 제어 SW 산업 내에서 높은 진입장벽과 벤더 전환 비용 구조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반도체 제어 SW는 신규 장비 도입 및 공정 셋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으로, 장비 출하량과 높은 연동성을 보인다. 반면, 설비투자가 위축될 경우 신규 매출이 급감하는 특성을 가지며, 유지·보수(MRO) 중심의 제한적인 수요만 발생하는 구조다. 2022~2024년 기간 동안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신규 라인 증설보다는 기존 설비 운영 효율화와 재고 조정에 집중하며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해 왔고, 이에 따라 장비업체들의 신규 장비 출하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장비 셋업 단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제어 SW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이는 동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및 후방 SW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3~2024년 조정 국면을 거친 이후 2025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WSTS(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최신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6,305억 달러, 2025년 7,722억 달러에서 2026년 9,755억 달러로 확대되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예상된다. AI 서버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DRAM·HBM) 수요가 회복 국면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투자 역시 2025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 전환 및 AI 대응 투자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인 CAPEX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설비투자 회복 흐름은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출하 증가로 연결되며, 장비 제어 SW 수요 역시 동반 회복되는 구조다.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요 장비업체들과의 기술 협의 및 신규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실질적인 장비 출하 증가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니나, 차세대 장비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 제어 SW에 대한 사전 협업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황 저점 통과 가능성은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동사의 솔루션 매출 역시 2022년 이후 약 3년간의 부진 국면을 지나 점진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5년 이후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는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장비업체들에게 기존의 단순 제어 기능을 넘어 공정 데이터 수집, 이상 감지, 장비 상태 예측 등 AI 기능이 접목된 제어 시스템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장비업체들 역시 장비 단위에서 AI 기능을 탑재하거나 제어 SW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제어 SW 산업 전반의 기술 요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제어 SW는 공정 안정성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장비업체 입장에서 검증된 벤더를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개발 및 검증 기간이 길고, 실패 시 장비 성능 및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 속에서 동사가 국내 주요 장비업체들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 실적 부진과 별개로 산업 내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반도체 제어 SW 산업은 2024~2025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재개와 함께 장비 출하 증가가 이어질 경우 관련 수요 역시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코닉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산업 구조 내에서 장비 출하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 공정 자동화 수요 확대라는 중기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어 SW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적용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제품군	2024	2025E	2026E	2024 성장률	2025 성장률	2026 성장률
개별 반도체	31,026	30,900	33,436	-12.7	-0.4	8.2
광전자	41,095	42,597	45,020	-4.8	3.7	5.7
센서	18,923	20,894	22,713	-4.1	10.4	8.7
집적회로(IC)	539,505	677,852	874,291	25.9	25.6	29
└ 아날로그	79,588	85,552	91,988	-2	7.5	7.5
└ 마이크로	78,633	84,839	96,620	3	7.9	13.9
└ 로직	215,768	295,892	390,863	20.8	37.1	32.1
└ 메모리	165,516	211,568	294,821	79.3	27.8	39.4
전체 제품 합계	630,549	772,243	975,460	19.7	22.5	26.3

자료: WS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CAPEX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스마트팩토리 산업 현황

스마트팩토리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

스마트팩토리 산업의 본질은 자동화 설비(하드웨어)와 이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합에 있다. 초기 스마트팩토리는 자동화 설비 도입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설비 간 연동, 공정 흐름 제어, 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 등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산업은 단순한 장비·설비 산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제조 현장의 공정 복잡도 증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동화 수요 확대, 그리고 품질·수율 관리의 중요성 부각에 기인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고부가 제조 산업에서는 공정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생산성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설비 성능 자체보다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조사들은 비용 절감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신규 설비 증설보다는 기존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2024년 964억7천만 달러에서 2025년 1,044억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30년까지 1,697억3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은 10.2%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팩토리 시장의 성장은 단기적인 설비 투자 사이클보다는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고도화 수요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으로 해석된다.

제조 현장에서 하드웨어는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지만, 실제 생산성·수율·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설비 제어 로직, 장비 간 인터페이스, 공정 순서 관리, 이상 감지 및 알람 체계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영역에 해당하며, 자동화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하드웨어 단독 경쟁력보다 제어 SW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산업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보다, 양자 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코닉오토메이션의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반도체 장비 제어 SW를 통해 축적한 하드웨어 제어 경험을 기반으로, 적용 산업을 이차전지 및 물류 자동화 영역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차전지 부문에서는 국내 주요 양극재업체 대부분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양극재 제조 공정 내 설비 제어 및 공정 연동과 관련된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 산업은 혼합·소성·분쇄 등 공정 특성상 설비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제품 품질과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장비 단위 제어를 넘어 공정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수요가 존재한다.

물류 자동화 부문에서는 쿠팡과 CJ대한통운을 고객사로, 자동 창고 및 이송 설비와 연동되는 제어·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물류 자동화 산업은 하드웨어 설비 자체보다 물류 흐름 최적화, 트래픽 관리, 재공품(WIP) 이동 경로 제어 등 운영 효율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은 영역이다. 특히 대규모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설비 간 연동과 실시간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운영 효율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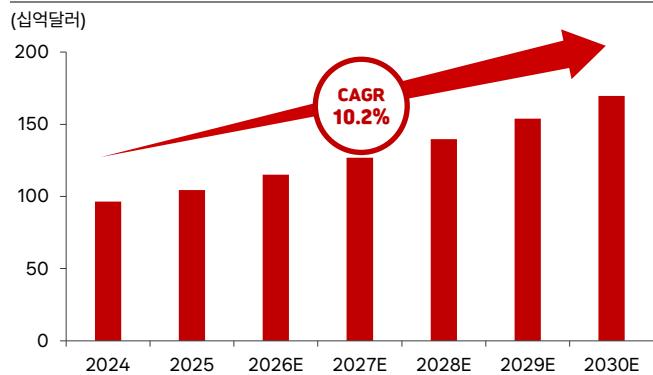
종합하면 스마트팩토리 산업은 하드웨어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제어 시스템 통합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코닉오토메이션은 반도체 산업에서 검증된 장비 제어 SW 역량을 출발점으로, 이차전지 및 물류 자동화 영역에서 실제 고객사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실적 기여보다는 중기적인 사업 구조 확장과 기술 적용 범위 확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판단된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HW와 SW를 유기적으로 결합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전망



자료: Global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2차전지 소재 시장 전망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반도체 장비 제어SW, 업황 회복 국면 진입에 따른 실적 정상화 기대**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로****제어SW 실적 정상화 기대**

코닉오토메이션의 핵심 투자포인트는 반도체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의 업황 반등이다. 동사는 지난 3년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장비 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제어 소프트웨어 매출과 수익성 모두 저점 구간에 머물렀다. 코닉오토메이션의 제어SW 매출은 2021년 90억 원에서 2023년~2024년 60-70억 원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메모리 중심의 설비 투자 재개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장비 생산에 통상 6개월 내외의 리드타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 설비 투자 회복은 시차를 두고 동사의 제어 소프트웨어 매출 회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업황 회복 국면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고객사의 요구 사항이 단순 증설을 넘어 공정 고도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 단 운영 효율과 수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비별로 AI 기능을 탑재하라는 요구가 장비사에 전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사는 제어 소프트웨어 단계부터 AI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중요도가 과거 대비 명확히 상승한 국면이다.

코닉오토메이션은 장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비사와 공동으로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단 데이터 수집·구조화·운영 로직을 담당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는 AI 모델 자체보다 실행 구조가 중요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국면에서 경쟁력이 되는 요소다. 반도체 업황 반등과 함께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의 개발·ライ선스 매출이 회복될 경우, 동사의 실적과 수익성은 동시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일본산 반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와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반도체 장비사들 사이에서 검증된 대체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장비의 하드웨어 수준은 빠르게 고도화된 반면, 제어 소프트웨어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율 문제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양산 라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중국 장비사 킹세미(Kingsemi)에 연간 20억 원 내외의 제어SW 라이선스 매출이 나오고 있다. 2024년 연간 기준 제어SW 수출 매출은 23억 원이 발생했으며 제어SW 사업부 내 약 33%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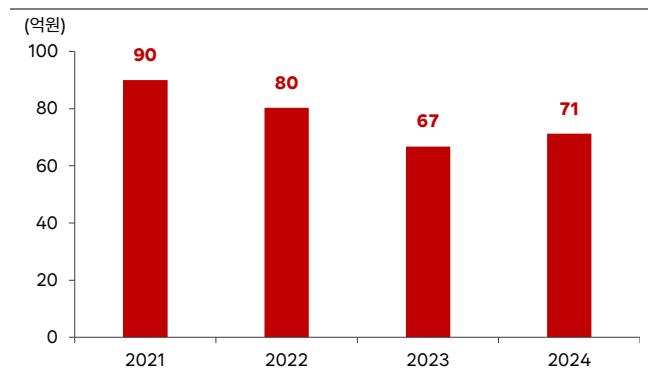
향후 중국 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공정 고도화가 지속될 경우, 제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대체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상하이 영업 거점을 통해 중국 장비사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국내 고객사 의존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외형 성장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닉오토메이션 반도체 제어 S/W 주요 고객사 및 End-User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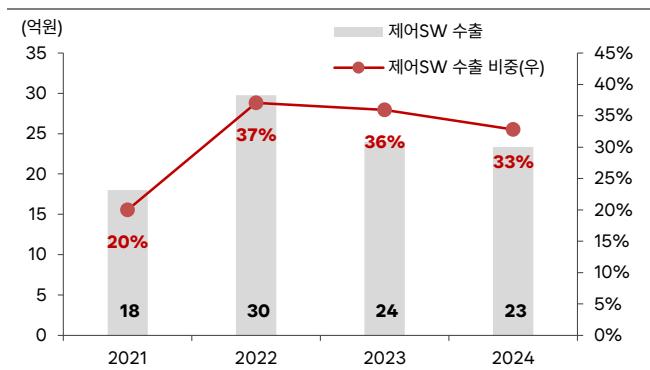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닉오토메이션 반도체 제어 S/W 매출액 추이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닉오토메이션 반도체 제어 S/W 해외 매출 실적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안정적인 IT 인프라 사업부 – 전사 실적 변동성을 완충하는 캐시카우

IT 인프라 보안 이슈 확대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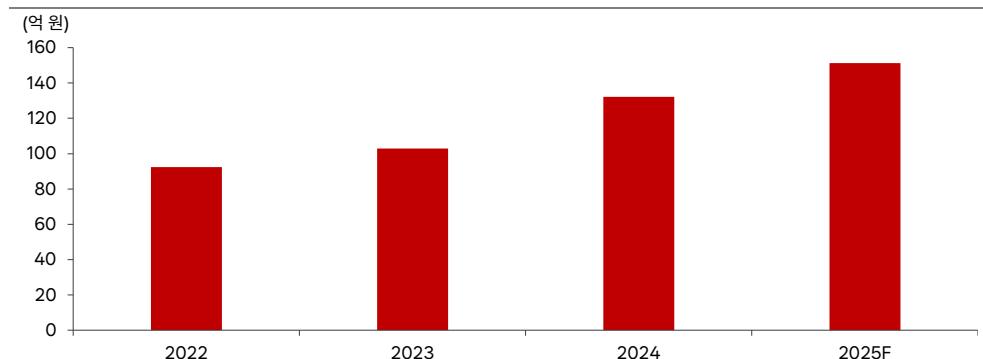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 기대

코닉오토메이션의 IT 인프라 사업부는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버 구축, 네트워크 설계,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전통적 인프라 SI 사업이다. 서버 단 보안, 라우터 기반 IP 분배 환경, 접근 권한 관리 등 필수 인프라 영역을 커버하며, 구축 이후 유지보수 매출이 동반되는 구조를 갖는다. 단일 프로젝트 규모는 건당 2억 원 내외의 소액 다건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30-15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동 사업부는 영업이익률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 집약적 구조를 감안하면 업계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조직력 강화와 엔지니어 스킬업을 통한 비용 통제가 병행되며, 대형 프로젝트 의존도가 낮아 실적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특히 고객군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다변화돼 있어 경기 변동이나 특정 산업 투자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실제로 청와대 경호처를 포함한 공공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 풀이 넓어 특정 거래처 리스크도 제한적이다.

산업 환경 측면에서도 중장기 수요 기반은 유효하다. 최근 SK, KT, 쿠팡 등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보안 이슈가 반복적으로 부각되며 인프라 보안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을 전후로 NVIDIA GPU 도입 확대에 따른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서버·네트워크·보안 전반에 대한 인프라 투자 니즈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코닉오토메이션 IT인프라 사업부 매출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5년 실적 리뷰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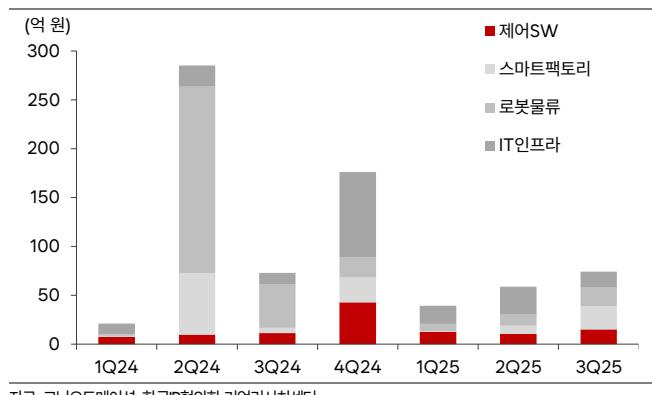
2025년 3분기 누적실적은 매출액 172억 원(YoY -54.7%), 영업이익 -37억 원(YoY 적자확대)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방 산업의 투자 위축과 전년도 일회성 매출 기저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어SW 37.8억 원(YoY +33%), IT인프라 63.4억 원(YoY +41.1%)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했다. 제어 SW 부문은 반도체 장비 개발·라이선스 중심의 매출 구조로, 기존 고객사 기반의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IT 인프라 부문은 공공·기업 고객 기반으로 최근 보안 이슈가 대두되며 안정적인 수요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연간 150억 수준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부로 전사 실적 변동성을 완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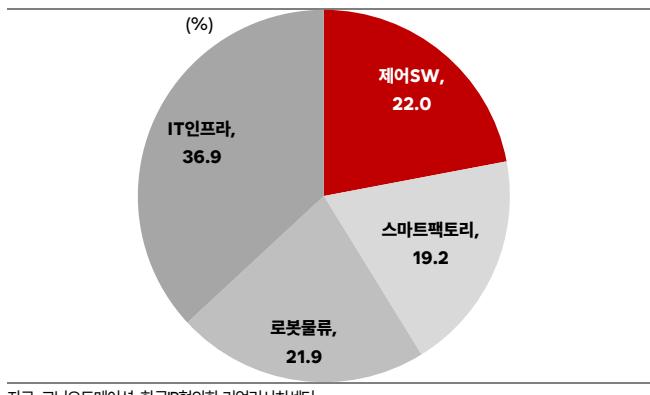
반면, 스마트팩토리 매출은 33.0억 원(YoY -52.5%), 로봇물류 매출은 37.6억 원(YoY -84.1%)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부의 경우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이차전지향 설비 투자 지연이 지속되며 스마트팩토리 수주 감소가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로봇물류 사업부의 경우 2024년 약 200억 규모로 인식되었던 한화솔루션 태양광 설비 자동화 매출이 단발성에 그치면서, 전년도 기저효과로 2025년 로봇물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적자 확대는 고정비 중심의 비용 구조에서 매출 레버리지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원가율 개선으로 매출총이익률은 7.7%에서 17.4%로 상승했으나, 외형 축소로 절대적인 이익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판관비는 50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증가하며 판관비율이 13.3%에서 38.7%로 급등했다. 특히 인건비(29억 → 37억 원), 연구개발비(9억 → 12억 원) 등 고정성 비용이 유지·증가한 가운데, 지급수수료와 감가상각비 역시 증가해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용 흡수력이 저하되며 영업적자가 확대된 구간으로 평가된다.

코닉오토메이션 사업부문별 분기 매출 추이



코닉오토메이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3Q25 누적 기준)



▣ 2025년 연간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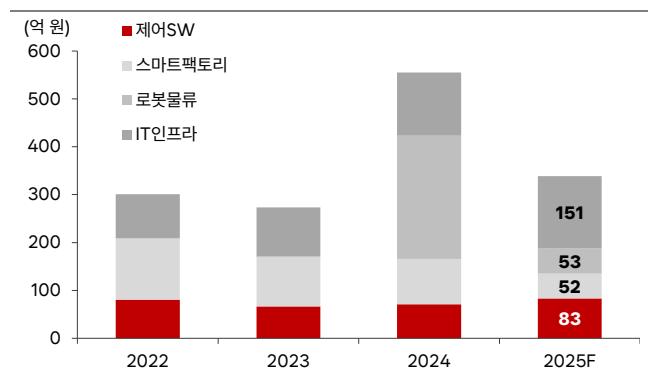
2025년은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역성장 불가피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167억 원(YoY -5.1%)으로 예상된다. 4분기는 IT 인프라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존재하는 분기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감소 폭은 연중 다른 분기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다. 사업부문별로는 제어 SW 45억 원(YoY +5.2%), 스마트팩토리 19억 원(YoY -24.8%), 로봇물류 15억 원(YoY -27.3%), IT 인프라 88억 원(YoY +0.8%)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4분기 매출 비중은 제어 SW 26.9%, 스마트팩토리 11.4%, 로봇물류 9.0%, IT 인프라 52.7%로, IT 인프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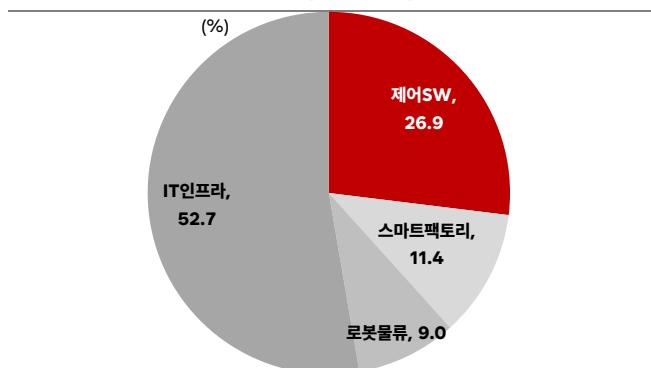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39억 원(YoY -39%),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로는 제어 SW 83억 원(YoY +16.3%), 스마트팩토리 52억 원(YoY -45.1%), 로봇물류 53억 원(YoY -79.5%), IT 인프라 151억 원(YoY +14.5%)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 인식됐던 태양광 설비 자동화 관련 일회성 매출(257억 원)을 제외하면, 동사의 매출 흐름은 2023년 이후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은 전년도 일회성 매출 이후 실적 레벨이 재조정되는 과도기적 구간이며 전방 산업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둔화로 판단된다.

코닉오토메이션 사업부문별 연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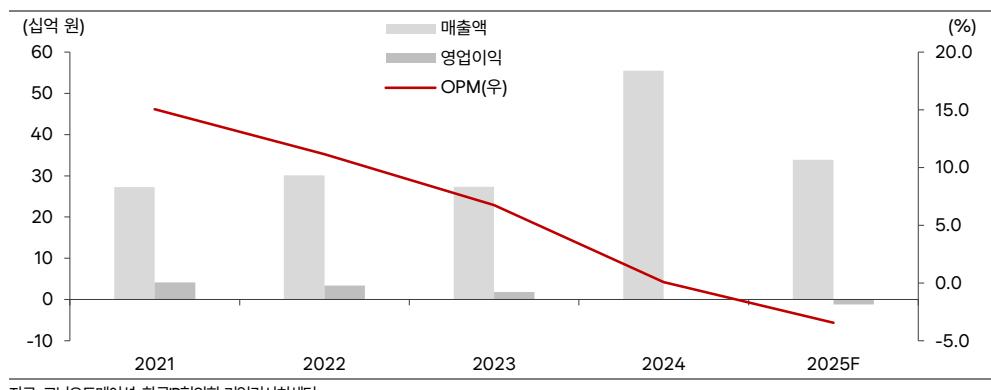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닉오토메이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4Q25 기준)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닉오토메이션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테이블

(단위: 억 원, %)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300.9	273.5	555.1	338.8
제어 SW	80.3	66.8	71.2	82.8
스마트팩토리	128.3	102.9	94.6	52.0
로봇물류	0.0	1.0	257.1	52.6
IT 인프라	92.3	102.8	132.2	151.4
영업이익	33.5	18.4	0.5	-11.7
영업이익률	11.1	6.7	0.1	-3.5
당기순이익	-55.7	23.4	10.2	-15.7
당기순이익률	-18.5	8.5	1.8	-4.6
YoY				
매출액	10.3	-9.1	103.0	-39.0
영업이익	-18.3	-451	-97.5	직전
당기순이익	직전	흑전	-56.2	직전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F PSR 3.0배

일반 SI·SW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코닉오토메이션의 현 시점 적정 가치는 이익 기반보다는 PSR(주가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사가 영위하는 제어·자동화 SW 산업은 수주 기반의 프로젝트형 매출 구조를 가지며,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CAPEX) 집행 시기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포스코DX, LSE티라유텍 등 주요 Peer 그룹 대다수가 2025년 이익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장은 단기 이익 수치보다는 매출 규모와 기술적 해자를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척도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eer 그룹의 PSR 분포를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에스엠코어(0.8배), 이삭엔지니어링(0.9배) 등 일반 물류 자동화 및 범용 SW 기업은 1배 미만의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제조 DX 플랫폼 기업인 포스코DX(3.2배)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 LSE티라유텍(4.5배)은 3배 이상의 높은 멀티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단순 SI(시스템통합) 영역을 넘어, 캡티브(Captive) 기반의 확장성이나 독자적인 SW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확실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닉오토메이션의 현재 PSR 3.0배는 반도체 CAPEX 상승 국면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해석된다. 동사의 주력인 제어 SW(EasyCluster)는 반도체 장비 양산의 필수재 성격을 띠고 있어, 범용 자동화 기업 대비 진입 장벽이 높고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가 강력하다. 무엇보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및 설비투자 재개 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Peer 평균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은 향후 도래할 반도체 투자 빅사이클(Big Cycle)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선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투자 회복기 실적 반등과 함께 현재의 멀티플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닉오토메이션 피어 테이블

(단위: 억 원)

기업명	시가 총액 2024	매출액 2024	영업이익 2024	PSR	비고
코닉오토메이션	1,033	555	0	3.0배	제어 SW-스마트팩토리
포스코DX	44,014	14,733	1,089	3.2배	제조 DX-자동화
에스엠코어	886	1,632	71	0.8배	물류 자동화
이삭엔지니어링	736	685	-45	0.9배	산업 SW
LSE티라유텍	1,613	575	-79	4.5배	제조 SW

자료: 코닉오토메이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1 장비사 소프트웨어 내재화 확대에 따른 경쟁 구조 변화 리스크****장비사의 소프트웨어 내재화****움직임**

반도체 및 제조 장비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장비사들은 핵심 소프트웨어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장비사 입장에서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코닉오토메이션은 장기간의 레퍼런스와 현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장비사들의 내재화 전략이 확대될 경우 신규 수주 및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정 복잡도가 높은 전공정 장비 영역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리스크는 점진적·선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전환사채(CB) 관련 잠재적 희석 리스크**주가 상승시 오버행 이슈 존재**

코닉오토메이션은 2025년 6월 사모 방식으로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해당 CB의 전환가액은 1,637원이며, 전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약 794만 주가 신규 발행될 수 있다. 이는 기준 발행주식 수 대비 약 15.9% 수준의 잠재적 희석 물량에 해당한다.

CB의 전환청구 가능 기간은 2026년 6월부터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전환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주식 수 증가나 대규모 오버행 부담은 제한적이나, 향후에도 주가가 전환가를 상회하는 구간에서 형성될 경우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적 가시성이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 구간에서는 CB 전환 가능성이 주가 상단을 제약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CB는 대규모 M&A나 공격적인 외형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기존 사업 운영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 목적으로 발행됐다는 점에서 재무 안정성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73	301	273	555	339
증가율(%)	40.5	10.3	-9.1	103.0	-39.0
매출원가	147	182	173	486	262
매출원가율(%)	53.8	60.5	63.4	87.6	77.3
매출총이익	126	119	100	69	77
매출이익률(%)	46.2	39.6	36.6	12.4	22.7
판매관리비	85	86	82	69	89
판관비율(%)	31.1	28.6	30.0	12.4	26.3
EBITDA	46	40	26	9	1
EBITDA 이익률(%)	17.0	13.2	9.4	1.6	0.2
증가율(%)	109.5	-14.3	-35.4	-64.5	-94.1
영업이익	41	34	18	0	-12
영업이익률(%)	15.0	11.1	6.7	0.1	-3.5
증가율(%)	134.4	-18.3	-45.1	-97.5	적전
영업외손익	-1	-87	5	11	-3
금융수익	1	3	6	10	5
금융비용	2	2	2	1	6
기타영업외손익	0	-87	1	2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0	-53	24	12	-15
증가율(%)	161.2	적전	흑전	-51.6	적전
법인세비용	2	3	0	1	1
계속사업이익	39	-56	23	10	-1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9	-56	23	10	-16
당기순이익률(%)	14.2	-18.5	8.5	1.8	-4.6
증가율(%)	174.7	적전	흑전	-56.2	적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9	-56	23	10	-16

재무상태표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38	260	290	279	285
현금성자산	49	73	46	112	22
단기투자자산	0	96	41	10	110
매출채권	77	56	73	64	70
재고자산	8	14	78	54	59
기타유동자산	4	22	51	39	24
비유동자산	42	54	137	114	119
유형자산	23	23	42	42	41
무형자산	1	1	18	17	23
투자자산	1	16	57	32	32
기타비유동자산	17	14	20	23	23
자산총계	180	314	426	392	404
유동부채	89	68	138	103	74
단기차입금	38	17	0	0	0
매입채무	25	16	34	37	23
기타유동부채	26	35	104	66	51
비유동부채	38	23	27	28	129
사채	0	8	0	0	80
장기차입금	16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2	15	27	28	49
부채총계	127	90	165	131	203
지배주주지분	53	224	262	261	201
자본금	36	40	42	42	42
자본잉여금	15	227	234	244	200
자본조정 등	1	8	11	5	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4	6	-7	-7
이익잉여금	6	-47	-30	-23	-39
자본총계	53	224	262	261	201

현금흐름표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32	3	22	-10
당기순이익	39	-56	23	10	-16
유형자산 상각비	5	6	7	7	11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2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9	-10	-37	-5	-2
기타	6	91	9	9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	12	-8	42	-11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49	-23	45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	-2	-20	-2	-10
기타	-2	63	35	-1	-10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	-41	-22	-2	34
차입금의 증가(감소)	-9	-37	-17	0	-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80
자본의 증가	0	0	0	0	-44
배당금	0	0	0	0	0
기타	-3	-4	-5	-2	0
기타현금흐름	1	21	-0	3	0
현금의증가(감소)	7	24	-27	65	-90
기초현금	42	49	73	46	112
기말현금	49	73	46	112	22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30.6	N/A	46.1	58.5	N/A
P/B(배)	22.4	6.9	4.1	2.3	5.1
P/S(배)	4.3	5.2	3.9	1.1	3.0
EV/EBITDA(배)	3.9	35.5	38.9	54.1	1,847.7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96	-139	56	25	-37
BPS(원)	132	556	631	621	472
SPS(원)	679	748	661	1,335	804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15.9	-40.3	9.6	3.9	-6.8
ROA	24.1	-22.5	6.3	2.5	-3.9
ROIC	65.7	53.2	16.8	-2.0	-9.4
안정성(%)					
유동비율	155.7	383.8	210.7	270.6	384.5
부채비율	240.0	40.4	62.9	50.2	101.0
순차입금비율	20.0	-61.6	-29.7	-42.8	-21.8
이자보상배율	20.5	14.8	21.4	0.5	-2.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7	1.2	0.7	1.4	0.9
매출채권회전율	4.7	4.5	4.3	8.1	5.0
재고자산회전율	30.8	27.6	6.0	8.5	6.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정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정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코닉오토메이션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2.18	코닉오토메이션-장비 제어SW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2023.02.15	코닉오토메이션-스마트팩토리로 성장한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종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시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